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장전동 산 30번지)
발행일 2015년 9월 11일 | 전화 051-510-1501 | 발행인 권연진 | 편집인 임상택
디자인/제작 비온후 (051-645-4115 / beonwhobook@naver.com)

학사 일정

9.1(화)	2015학년도 제2학기 개강
9.1(화)~7(월)	1·2차 수강신청
& 9.14(월)~15(화)	
9.21(월)~25(금)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9.25(금)	학위청구자격 외국어시험
10.12(월)	2015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10.19(월)~23(금)	2학기 중간고사
11.10(화)~12(목)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2.11(금)~17(목)	2학기 기말고사
12.18(금)	동기휴가 시작
12.18(금)	겨울계절수업
-2016.1.14(목)	
1.4(월)	2015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26(금)	2015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故 고현철 교수님 유서 전문



故 고현철 교수님의 편지에 편지를 보냅니다
고현철 교수님의 생각만 뜻 외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부터 고현철 교수님 유서 전문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란 점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뎠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뎠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무뎠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오직 총장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며 국·공립대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부산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런 참담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를 봐도 부산대학교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서 있었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농성 등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교수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뜻이 여러 차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뎠었다는 방증이다. 대학 내 절대권력을 가진 총장은 일종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수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들어갔고, 오늘 12일째이다. 그런데도 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총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총격요법밖에 없다. 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수끼리 보는 방법으로 이미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늘 그랬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 등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나도 그동안 이를 위해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8·90년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식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게 보다 오히려 새롭게 관심을 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총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근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그 몫을 담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뎠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이 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 것이다.

Contents

대학 민주화를 위한 고귀한 희생

총장 후보자 선출방식으로 간선제를 추진하던 학교 당국과 직선제를 지키려는 교수협의회가 충돌하던 가운데 8월 17일 오후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시위 중이던 본관 4층에서 투신하여 유명을 달리했다. 고 교수는 평소 교수회 활동을 하거나 총장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 목소리를 외부로 내지는 않았지만, 인문대 출신 총장의 행보가 실망스럽다는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한다. 사건 직후 김기섭 총장은 사퇴하고 안홍배 교육부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한국 현대시 전공인 고현철 교수는 1992년 무크지 『지평』 10집에서 6편을 게재했으며, 2013년에는 시집 『평사리 송사리』를 발표했다. 1991년 비평전문지 『오늘의 문예비평』에 평론을 발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부산 문학평론 분야에서 중견 평론가로 활약하면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성품과는 달리 평론에서만은 주관을 내려놓지 않았다. 평론집 『탈식민주의와 생태주의의 시학』에서 우리 시에 내재한 식민성을 지적하는 등 독자적 시론 정립에 상당한 공을 들였으며 『구체성의 비평』, 『현대시의 패러디와 장르이론』 등의 평론집을 남겼다. 문학과 더불어 영화에도 관심이 많아 영화 평론가로도 활약하며 부산대 영화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8월 19일 대학본부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고 교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학발전과 민주화에 노력하기로 하고, 차기 총장 선거를 직선제로 치르는데 합의했다. 교수회 부회장이자 비대위 부위원장인 차정인 교수는 “대학본부가 이 시점에서 고인의 유지를 존중해 교육부의 압력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을 내려줬다”며 감사를 표하고, “이로써 부산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부의 압력에도 총장 직선제를 지켜낸 대학이 되었다”며, “앞으로 (교육부의)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총장선출제도인 간선제를 철폐시켜나가는 첫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2년부터 불거진 총장 후보 선출방식을 둘러싼 갈등을 종식하고 우리 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정부의 압력을 상대로 직선제 사수에 나서으로써 파장은 전국 국립대로 번져갈 태세다. 전국거점국립대교수협의회(거국련)는 8월 20일 제주대에서 열 예정이던 총회를 부산대로 옮겨 개최하고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소위 로또선거로 불리는 임의추출식 총장추천위원회 선출방식을 폐지하고 직선제

총장 선출로 복귀하기로 했으며,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교육부의 어떤 정책도 거부한다고 결의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학술단체들도 고 현철 교수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고 교수의 유지를 받들어 대학 민주주의를 위해 나설 것임



교수님을 추모하며 ... (의거 장소)



故 고현철 교수 전국교수장 영결식

을 천명했다. 8월 21일에는 전국국립대학교교수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교수연합회, 전국거점국립대학교교수연합회, 민주화를 위한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사실상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가 대학 자율성 회복을 위한 전국교수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내 갈등이 아닌 제도적 타살로 규정하여 정부 책임론에 불씨를 지피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싼 투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월 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대학의 자율권과 민주적 의사결정을 상징하는 제도로 안착되어 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빌미로 39개 국립대학교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 총장 간선제를 도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교수가 대학 민주화를 요구하며 몸을 내던지는 극한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학생들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대정부 비판 성명을 발표한 부산대 총학생회는 단과대 학생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직선제 사수 결의에 나섰으며, 시민의 힘 만들레, 부산학부모연대, 전교조 부산지부, 부산지역 민주동문회연석회의 등 시민사회도 이 같은 대열에 가세하여 고 교수 투신사태를 추모하며 교육부와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진혼문(鎭魂文)

서은주



추모를 위하여 모인 교수와 학생

고인의 유지가 선행됨에 따라 8월 21일 '민주화의 불꽃 故 고현철 교수 전국교수장'으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오전 7시 30분 발인을 시작으로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축된 10.16기념관에서 엄수된 영결식에서는 교수와 학생 대표의 추도사, 부산작가회의의 추모시, 강미리 무용학과 교수의 진혼무 등이 이어졌고, 고 교수의 유족도 "고인의 뜻을 이어 강건하게 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권연진 인문대 학장은 "오늘 내리는 비만큼이나 무거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다. 고인의 죽음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으며, 김려실 국문과 학과장은 "동료 교수로서 애통하기 그지없다"고 눈물을 삼켰다. '대학 민주화'의 불씨를 남기고 떠난 고 교수의 유해는 영락공원 화장 절차를 거쳐 부산시 기장군 정관에 위치한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되었다.

개강 후 9월 10일에는 400여명의 인문대학 교수와 학생들 및 타 단과대학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고인을 기리는 "민주화의 불꽃 故 고현철 교수 인문대학 추모식"이 거행되었다. 부산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학교 본부는 직선제 복귀 합의 이후 학칙 개정 절차, 선거 준비 등에 대한 후속합의를 이루었고, 현재 개정 학칙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은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대학 민주주의 실현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한참을 머뭇거리다. 사적인 글을 쓰는 것은 늘 고통스럽다. 서투르게 전한 편지들을 애뜻이 여겨주었던 친구가 있었다. 그에게 건넨 글이 그를 죽게 한 것은 아니었으나 가난한 그 글이 그를 살리지는 못하였으니, 사적인 글을 쓰는 것은 그래서 늘 힘겹기만 하다.

잃고자 하지 않았으나 잃어야 했던 벗도 있었고, 잃을 줄 몰랐으나 잃어버린 벗도 있었으며, 잃지 않을 줄 알았으나 잃게 되어버린 벗도 있었다. 스스로 위태로운 삶을 살아서였는지 아니면 위태로운 이들을 곁에 두어서였는지, 망연히 잃은 벗들의 기일이 계절마다 고여 있다. 그 즈음이 되면 신열을 앓고는 한다. 함께 나는 시간의 마디마디가 온몸에 상처로 새겨져 있어서일 것이다. 망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애도를 제때 이루지 못하였으니, 명복 또한 올곧게 심지 못하였다. 하여 설움이 흥건해질 때면, 진혼곡을 청하듯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듣는다. 곡진한 사연이 있는 곡이 아님에도 몇 마디 채 연주되기도 전에 매번 흐느끼고 만다. 곡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닫히며, 시간이 흐르고 멈추며, 꽃이 피고 지는 소리를 듣는다. 생의 유상함과 무상함을 듣는다. 모래처럼 흩어지는 생과사를 허망하게 부여잡을 수 없음을 듣는다. 만다라의 음악적 현현이다.

청하고 또 청한다. 위령제를 모시듯 경청한다. 기실 어디든 여린 삶 속에서 일어나는 반복은 비극에서 희극으로의 변주가 아니라, 한번은 아련함으로 그리고 다른 한번은 애잔함으로 채색됨을 비로소 헤아린다. 글렌 굴드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또한 첫 번째 연주는 봄의 설레임으로, 두 번째 연주는 가을의 스산함으로 가득 차 있다. 두 번 녹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삼던 그가 예외로 삼았던 곡, 첫 음반과 마지막 음반에 담았던 곡, 굴드가 사랑했던 그 곡을 친우의 기일이 맺힌 가을, 들었다.

한참을 서성거리다. 잊지 않는다 함은 유여한 찰나가 아닌 절박한 영속임을 아프게 새긴다. 만물이 창연하니, 빛바랜 마음에 그늘이 진다. 상여를 멘 상두꾼 마냥, 서러운 맥박이 춤을 춘다. 가을이다. 진혼의 계절이다.



필자 : 인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독문학(예술) 전공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과에서는 4월 1일(수)~3일(금) 2박3일간 학술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전라도 일대의 박물관 및 박물관, 문화유적 등을 둘러보고 자연을 느끼는 가운데 대학원생의 강연을 통해 전공을 심화하고,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겸하여 교수와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시켰다. 부산한글학회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가 후원하는 제22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가 5월 30일(토) 인문관 412호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지역 각 대학생들이 국어학·국어교육·언어학·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한 6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어국문학과에서는 김아혜(13학번) 학생이 「신조어에 나타난 '개'의 쓰임과 그 문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여 논문내용우수상을 받았다. 제1회 부산한글문화상 시상식도 동시 거행되었는데, 국어국문학과 박소영 교수가 학술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중어중문학과



중어중문학과에서는 4월 3일(금)~4일(토) 1박2일 일정으로 거제도 일대 답사를 다녀왔다. 신입생과 재학생, 김세환·남덕현·이지은 교수와 조교 등 75여명이 참가하여 사제 간의 어울림 마당이자 신입생과 재학생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거제도 바람의 언덕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추억을 만들고, 몽돌해수욕장에서는 몽돌 사이로 밀려드는 바다 물결과 파도소리를 감상하며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는 체험을 했다.

일어일문학과



일어일문학과에서는 2월 12일(목) '일어일문학과 오리엔테이션 및 신규대면식'을 열었다. 오전의 오리엔테이션에서 학과소개와 수강지도,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을 한 후 2·3학년 선배와 함께 수강신청을 하고, 오후에는 신규대면식 행사를 하였다. 3월 14일(토)~15일(일)에는 해운대 청소년수련원에서 '새또맛이'를 열었다. '새또맛이'는 매년 있는 학과 행사로 교수, 객원교수, 신입생, 재학생, 복학생 간의 교류의 장이다. 학과교수 소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소개, 신입생 장기 자랑, 미스일본 선발대회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영어영문학과



영어영문학과는 4월 13일(월)~15일(수) 국내 최초로 체계기능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 SFL)을 번역학에 접목한 연구를 토론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SFL 분야의 국내외 저명학자



들의 발표를 듣고 참여 학생 및 교내외 참가자들과 토론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의 연구를 접하고 새로운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론을 모색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고, 향후 참여 대학원생의 번역논문 등의 연구에 깊이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어학·문학·번역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5월 15일(금) 교수들과 함께 금정산일대로 봄 산행을 했으며, 5월 29일(금)에는 통번역 및 영상번역 분야에서 활동하는 통번역 및 영상번역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통번역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내용 및 실무를 소개하고 실습을 진행하여 통번역 및 영상번역에 대한 흥미를 돋우고 입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 사회에 공헌하였다.

불어불문학과



불어불문학과는 4월 3일(금)~4일(토) 송정해수욕장 일원에서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가졌다. 약 40여명의 학생들과 교수들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며 신입생과 복학생, 그리고 편입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독어독문학과



독어독문학과는 4월 29일(수) 독일대사 초청강연회를 마련하였다. 롤프 마파엘(Rolf Mafael) 독일대사는 "Germany and the EU: Where do we stand today?"란 주제로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지 25년이 지난 현재의 독일과 유럽연합의 관계에 대해 강연하였으며, 강연 및 질의응답은 영어로 진행되었다.

노어노문학과



노어노문학과는 2015년 올해 학과 개설 20주년을 맞이하여 "5월애, ДОМОЙ!(5월에 다도이!)"라는 이름의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시부터 시작한 체육대회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졸업생들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성공리에 마무리 되었다. 행사는 피구, 미션달리기, OX퀴즈, 축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오는 10월 초에 본격적인 노어노문학과 개설 20주년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한문학과



한문학과는 3월 13일(금)~14일(토) 경북일대로 춘계답사 겸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왔다. 영축총림 통도사와 옥산서원 등 경북일대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하였다. 행사 후 선·후배와 교수들은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짐으로써 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5월 '성인의 날'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효원성년제(曉原

成年祭'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는 부산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 자리뿐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지원자가 70명을 넘는 이번 성년제는 넉넉한 터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음악학과의 협찬으로 국악공연도 함께하였다.

언어정보학과



언어정보학과는 3월 13일(금)~14일(토) 송정으로 1박2일간의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왔다. 60여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한 신입생환영회에서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30일(토) 부산한글학회 주최로 열린 제22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에 언어정보학과의 김근우, 강소희, 김은경, 서영서, 조유진 학생이 참가하여 자료분석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언어정보학과의 권순복 교수는 5월 30일(토) 사단법인 한국언어치료학회 장으로서 스페셜 워크숍을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는데, 워크숍의 주제는 “최신 언어치료 프로그램 동향—신경언어장애 진단 및 치료”란 내용으로 이 분야의 저명한 강사진[김인섭(Northern Illinois Univ.), 임경열(호남대), Uno Akira(Tsukuba Univ.)]을 섭외하여 300여명 학회원들의 참석과 호응을 받았다.

사학과



사학과의 변선경 석사(지도교수 광차섭)가 4월 27일(월) 한국서양사학회에서 주관하는 제3회 우수 석사논문상 수상자에 선정되었다. 우수평가를 받은 논문 「사보나롤라와 덕의 공화국(Savonarola and the Republic of Virtue)」은 기존에 잘 다루지 않았던 이탈리아 르네상스기의 수도사 사보나롤라의 정치사상을 통해 공화주의의 새로운 측면을 조명하고 있다. 사학과의 남재선 석사(지도교수 최덕경)는 5월 27일(수) 열린 2015학년도 '대학원 학술상'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6월 11일(목) 개최된 해외학자 초청 학술세미나에서는 浙江工商大學 東亞文化研究院 韓國學研究所의 김준(金俊, jin jun) 연구소장이 「중국의近代와神話의'발명'—孔子神話와黃帝神話, 그리고 중화민족론을 중심으로—」라는 연제로 강연을 했다. 본 강연에서는 동아시아에 유입된 '문명', '인종' 등 서구에서 발생된 담론들이 청일전쟁 후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토양'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현실과 충돌하면서 어떻게 중국의 근대적 전환에 영향을 주었는가를 공자신화와 황제신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철학과

철학과는 5월 23일(토) PNU 진로·진학 오픈캠퍼스를 진행하였다. 이번 오픈캠퍼스에서는 전체 강좌를 통해 철학과를 소개했으며, 10여



명의 학부생들이 참여하여 1차 17명, 2차 11명(총 28명)의 참석 고등학생들에게 소규모 그룹별 상담을 하였다. 5월 28일(월) 개최된 올해 첫 콜로키움에서는 문성원 교수가 “철학의 슬픔...”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는데, 교수, 강사, 대학원생, 학부생 등 약 40명이 참석하여 흥미로운 주제와 친근한 발표 진행에 힘입은 활발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고고학과



고고학과는 3월 31일(화)~4월 2일(목) 2박3일간의 춘계답사를 다녀왔다. 교수 및 조교, 학부생 등 총 105명이 대구 및 경북지역을 다니면서 견문을 넓히고, 서로간의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7월 8일(수)~12일(일)에는 중국 북경 및 낙양일대로 대학원답사를 다녀왔는데, 교수와 조교, 대학원생 등 26명이 중원지역의 여러 고고역사자료를 직접 보는 기회가 되었고 중국 북경대학, 길림대학 등 현지의 여러 석학 및 신진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코기토』가 7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에서 '등재지'로 선정되었다. 2015년 상반기에도 인문학연구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시켰다. 2월(『주변부의 역동성과 연대 가능성』)과 7월(『세계의 가장자리에서 번역의 현장과 미래를 말한다』) 두 차례의 '국내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변부가 문화 횡단과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서구 근대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하고, 세계의 가장자리 한국에서 이루어진 번역의 현장과 역사를 주목하며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번역의 미래를 제시하고자 했다.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일반시민을 위한 '인문강좌 프로그램'도 진행했으며, 부산시 교육연구원의 요청을 받아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특강'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그간 연구소가 주관해왔던 콜로키움, 문화이론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술강좌들도 연이어졌으며, 베르날 에레라 코스타리카 국립대학 부총장을 초청하여 「남미의 역사와 문학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해외학자 특강' (7월 7일(화)도) 열었다. 총 3회의 연속기획 특강(「정치적 난민의 장소성, 월남작가와 월경의 체험」—정주아/강원대, 3월 6일(금), 「박정희 체제의 대중동원-새마을 운동을 중심으로」—황병주/역사문제연구소, 4월 9일(금), 「프랑스 공화국과 무슬림 이민자들」—박단/서강대학교, 5월 8일(금)도) 진행하였다.

점필재연구소

점필재연구소에서는 “번역으로서의 언해, 그리고 소통하는 문명들II”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을 진행하였다. 「언해의 향유와 활용」이라는 세부 논의 주제를 가지고 총 7회에 걸쳐 언해의 다양한 활용과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언해의 의미 변화에 대해 집중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 이 시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시작된 2015년 제7회 인문고전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고전 관련 저자를 초청하여 강의 독서토론,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인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강좌는 9월 5일(토)까지 <독서캠프>를 포함한 총 5강으로 구성되는데, 5월 16일(토) “사회를 보는 눈”이라는 주제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의 저자 오연호 선생의 강연이 있었고, 7월 11일(토) 『불량 유전자는 왜 살아남았을까?』의 저자 강신익 선생의 ‘인문 의학’ 강연이 이어졌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민족문화연구소에서는 5월 14일(목)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 해외학자王大衛(王德威, David Der-Wei Wang)를 초청해 ‘화어계 문학: 중심과 주변의 변증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4월~6월에 걸쳐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 학술세미나도 매달 열렸으며, 7월 7일(화)~10일(금)에는 ‘대안과 실천으로서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제5회 로컬리티의 인문학 연구단 기획 콜로키움을 개최하였다.

또한 ‘고도의 기억과 문화적 상상’이라는 주제의 동양한문학회 동계학술발표대회, ‘한국사회가 묻고, 인문학이 답하다’라는 주제의 인문학연구소 공동학술심포지엄, ‘자율과 연대의 로컬리티’라는 주제의 로컬리티인문학연구단 제8회 국내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시민강좌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 (부산시립시민도서관과 공동)과 시민아카데미 ‘한국문화와 함께 하는 한국의 역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도 계속되었다.



동문소식

전실근 동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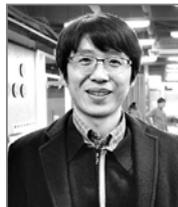
전실근(영문 60) 한국 사진작가협회 이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 ‘홀로코스트 사진전’을 4월 6일(월)~7일(화) 부산대에서, 그리고 4월 16일(목)~21일(화) 광복동 지하상가 ‘더 공간’에서 개최했다.

김혜영 동문, 첫 여성 의정관 광복 제70주년 중앙경축식 준비단장 역임



김혜영(영문 78) 행정자치부 의정관은 5급 특채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지난 4월 광복 이래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의정관에 올라 광복 제70주년 행사의 준비단장을 맡았다. 이번 광복절 기념행사는 야외(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던 50주년과 60주년 광복절 행사와는 달리 실내(세종문화회관)와 야외(광화문 광장)에서 병행되었다. 김 의정관은 실내에서 열린 본 행사 식전공연에서 국악 공연과 비보이공연을 함께 선보임으로써 전통과 현재의 만남을 고려하고, 참석하는 독립유공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교통편과 동선까지 일일이 점검했다. 병행된 야외행사에서는 태극기를 플래시몹으로 연출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는 한편, 참석자에게는 더위를 식힐 쿨밴드도 지급하는 등 세심한 배려를 했다.

박진명 동문, 부산청년포럼 초대위원장으로 선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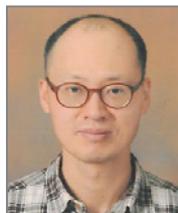
박진명(국문 99) ‘생활기획공간 통’ 대표가 부산청년포럼 초대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부산청년포럼은 청년들이 소리는는 공간으로서 젊은 세대가 만나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고민하던 모임이었는데, 지난 3월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물론, 변호사, 연구원 등 50여 명이 모여 공식 창립총회를 가졌다. “청년의 손으로 만드는 청년정책”을 꿈꾸는 박 운영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가·패널을 모아 청년의 고민을 직접 해결하는 창구를 만들되 “중심이 아닌 ‘서브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수동정

신임교수 부임



| 불어불문학과 조교수 이은령
이은령 교수는 1991년 부산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파리 7대학에서 언어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4년 프랑스 고등사회과학원(EHESS)에서 언어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발화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프랑스어와 한국어 담화의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하였다. 이후 프랑스어와 한국어를 대상으로 한 이중어사전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교문화학적 접근 방법을 기반으로 언어 권리와 정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사학과 조교수 윤욱
윤욱 교수는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예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청말 근기처와 통신제도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대안 중앙연구원 등에서 박사 후 과정을 수료했다. 2011년 귀국해 고려대학교와 단국대학교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미국과 대만에서 연구하는 동안 청말 관료제도의 효율성을 분석했고, 귀국한 후에는 만주족의 역사, 특히 청대-20세기 중반 훈춘지역의 만주족 사

회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Prosperity with the Help of Villains” (2012); 「清末民初 瓊春 旗人 엘리트의 향촌 지배의 변화」 (2013); 「買賣노비에서 家生노비로」 (2014); “Dashed Expectations” (2015) 등이 있다.

인문대 교수 장기파견 및 연구년

장기파견

이상도(영어영문학과) | 1년(미국: 2015.1.10.~)

정병언(영어영문학과) | 1년(미국: 2015.3.1~)

정해왕(철학과) | 1년(중국: 2015.3.1~)

연구년

노선숙(일어일문학과) | 1년(2015.3.1~)

김성진(한문학과) | 1년(2015.3.1.~)

서영건(사학과) | 1년(2015.3.1~)

교수동정



국어국문학과 박소영 교수, 제1회 부산한글문화상 학술부문 수상

여여선원과 부산한글학회는 박소영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제1회 부산한글문화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박 교수는 한국어교육센터장을 맡으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등 한글과 한국어 교육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하게 되었다. 박 교수는 한글날 유공자로 부산시장 감사패와 정여 스님이 출연한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교수동정단신

| **한태문** 교수(국어국문학과)는 3월 6일(금)~7일(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제3차 한일대표자회의에 참석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한 교수는 4월 24일(금)~26일(일) 일본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심포지엄 in 오카자키>에 발표자로 참여했고, 7월 9일(목)~10일(금) 일본에서 열린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3차 한일 공동학술대표자 회의에 참가했으며, 8월 1일(토)~3일(일) 일본 쓰시마에서 열린 이즈하라항 축제 조선통신사 행렬에 副使역으로 참여했다.

| **김혜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8월 7일(금)~13일(목) 중국에서 열린 국제 학술회의에 참석하여 논문 발표를 하였다.

| **이지은** 교수(중어중문학과)는 5월 21일(목)~24일(일) 서안교통대학과의 교류협정을 체결하러 중국에 다녀왔다. 이 교수는 7월 18일(토)~24일(금) 중국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 **오경환** 교수(일어일문학과)는 5월 7일(목)~12일(화) 국제공동연구회에 참석하여 발표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김동철** 교수(사학과)·**박정심** 교수(철학과)는 7월 2일(목)~4일(토) 대학사 연구 및 편찬 방법론 고찰을 위한 조사를 하러 일본에 다녀왔다.

| **김용규** 교수(영어영문학과)는 8월 18일(화)~26일(수) 연구 자료를 조사하러 독일과 덴마크에 다녀왔다.

| **박기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7월 30일(목)~8월 6일(목) 독일에서 열린 RRG 2015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였다.

| **이재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7월 1일(수)~8월 28일(금) 저서 출판을 위한 자료수집 차 미국에 다녀왔다.

| **박형섭** 교수(불어불문학과)는 6월 27일(토)~7월 6일(월) 2015 러시아 국제문학심포지움에 참석하여 논문발표를 하였다.

| **서은주** 교수(독어독문학과)는 7월 13일(월)~19일(일) 「오페라와 문학: 파울 힌데미트의 '카르디악'과 에테아 호프만의 '스퀴데리양' 연구」를 위해 독일에 다녀왔다.

| **인성기** 교수(독어독문학과)는 8월 19일(수)~9월 2일(수) 「경계 가로지르기로서의 글로컬리티: 오스트리아-이탈리아 접경지역의 <오이레기오 티롤-남티롤-트렌티노> 연구」를 위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를 방문했다.

| **이용권** 교수(노어노문학과)는 8월 12일(수)~19일(수) 연구자료 수집을 위한 현지 방문 차 러시아에 다녀왔다.

| **정출현·김남이** 교수(한문학과)는 8월 10일(월)~13일(목) 학술교류 구축을 위해 중국 南通大學南京大學의 <中韓文化센터>·<장건연구소>를 방문하고, 구한말 망명 지식인 滄江 金澤榮의 중국 亡命活動資料를 조사하였다.

| **김인택** 교수(언어정보학과)는 6월 5일(금)~15일(월)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코스타리카 대학에서 한국학 특강을 하고 한국학 강좌 지원 및 학술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코스타리카에 다녀왔다.

| **김태호** 교수(언어정보학과)는 7월 4일(토)~13일(월)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발표하러 그리스, 일본, 오스트리아에 다녀왔다.

| **김동철** 교수(사학과)는 3월 6일(금)~7일(토) 조선통신사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및 제3차 한일 공동 학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김 교수는 4월 16일(목)~26일(일) 두바이와 카이로를 중심으로 메나(MENA)지역의 전통문화자원 활용과 도시재생 현황을 조사하러 아랍에미레이트와 이집트에 다녀왔다.

| **윤욱** 교수(사학과)는 6월 29일(월)~8월 10일(월) 자료조사 차 중국에 다녀왔다.

| **김두철** 교수(고고학과)는 3월 8일(일)~11일(수)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협의 및 자료 조사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김 교수는 7월 8일(수)~12일(일) 중국 현지 자료 조사 및 최신 자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 **신경철** 교수(고고학과)는 3월 6일(금)~7일(토) 일본 학술진흥회 과학연구비에 의한 고대 한일갑주에 대한 공동연구 준비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 **양은경** 교수(고고학과)는 7월 8일(수)~15일(수) 황룡사 복원을 위한 건축용 철물 고증연구 용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참고문헌을 수집하기 위해 중국에 다녀왔다. 양 교수는 8월 7일(금)~11일(화) 역시 황룡사 복원을 위한 건축용 철물 고증연구 용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



『군주론: 군주국에 대하여』

니콜로 마키아벨리 지음, 곽차섭 옮김·주해, 출판사 길, 2015.

사학과 곽차섭 교수의 역서 『군주론: 군주국에 대하여』가 출간되었다. 이번에 나온 『군주론』은 최초의 이탈리아어-한국어 원문 대역판으로 문장가 마키아벨리의 ‘진짜’에 가까운 이탈리아어를 우리말로 정교하게 복원해보려 한 데 의의가 있다. 곽차섭 교수는 30년 넘게 마키아벨리와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지성사를 연구해온 권위자로서 『마키아벨리즘과 근대 국가의 이념』(1996)을 썼고 『마키아벨리 평전』(2000), 『마키아벨리언 모멘트』(존 포락, 2011)를 번역했다.



『대한자강회월보 편역집 3』

—자강의 논리

관규 외 3인 지음,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번역, 소명출판, 2015.

점필재연구소에서 편역한 대한자강회월보의 마지막 완역 시리즈이다. 대한자강회월보 편역집은 학술을 포함한 교육 관계 기사를 모아 첫째 권으로, 법학, 정치학, 농공학 등의 실용학문과 산업을 주제로 한 식산 관계 기사를 모아 둘째 권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 권은 교육, 산업, 실용학문 등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은 다양한 논설을 모아 펴냈다. 1권과 2권이 계몽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면 마지막 3권은 자강의 수사와 논리를 내밀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 고전번역학의 구성과 모색 2』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 고전번역학센터 지음, 점필재, 2015.

이 책은 번역학과 인접 학문 분야의 상호 교류의 첫 단계에서 번역학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중요하다는 명제를 확인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제1부에서는 고전번역 통론, 제2부에서는 중세 문명의 고전번역, 제3부에서는 근대의 고전과 번역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다.



『암서집(巖棲集) 6』

조금섭 지음, 남춘우, 김홍영 옮김, 점필재연구소, 2015

본서는 한국고전번역원과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가 권역별 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 계획에 따라 구한말에서 근대에 이르는 시기에 주자(朱子)와 퇴계(退溪)의 학문적 전통을 계승한 영남권의 대표적 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금섭(曹鏡燮, 1873~1933)의 문집 《암서선생문집(巖棲先生文集)》(한국문집총간 제350집)을 대본으로 하여 국역주해한 것이다.



『잃어버린 낙원, 원명원』

왕룽주 지음, 김승룡·이정선 옮김, 한숲, 2015.

중국의 원림사와 문화사, 근현대 정치사를 넘나들며 그려낸 원명원은 중국 원림 예술의 최절정기에 지어진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정원이다. 황실 어원인 원명원은 반세기가량 끊임없이 조영되었고, 서양인들의 눈에는 ‘지상 낙원’으로 비쳐졌다. 그러나 원명원은 영국-

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소실되었고, 동치제가 그 일부를 복구했으나 다시 8개국 연합군에 의해 훼손되었으며, 중화민국 이래로 거의 돌보는 사람 없이 방치된 채 끊임없이 파괴를 당했다. 이제 유적지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서양루 구역에 남은 몇몇 담장뿐이다.

역사가인 저자는, 원명원이 제왕의 공원으로 성장했다가 아편전쟁의 와중에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소실되어 스러지는 장면을 청조의 융성 및 패망과 오버랩하면서, 원명원의 뒷그림자에 청조의 역사를 어른거리도록 만들었다. 또한 각종 문헌 자료를 총체적으로 다루며 원명원 내 제왕(건륭제)의 일상을 재구성하고, 원내 조직과 역할을 보여줌으로써 원명이 그저 후양의 공간이 아니라 청조 정치의 심장부였음을 복원시켜 놓았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건축’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다. 제1부는 원명원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한 하드웨어적 탐색이고, 제2부는 원명원 내에서 이뤄진 사람들과 원명원 자체의 삶을 들여다보는 소프트웨어적 서술로 이뤄져 있다.



『역주 이재난고』

황윤석 지음, 이재난고역주사업단 옮김, 도서출판 신언, 2015.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부산대학교 이재난고역주사업단에서 번역한 『역주 이재난고』가 발간되었다. 『이재난고』는 영·정조시대 호남의 선비였던 황윤석(1729~1791)이 10세 되던 해부터 죽기 이틀 전인 63세까지 자신의 삶을 기록한日記이다. 이번에 발간하는 『역주 이재난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탈초본 『이재난고』를 저본으로 황윤석의 22차례에 걸친 한양기행 부분을 발췌하여 20책으로 완간한 것이다. 황윤석은 24세 때 춘당대정시를 보기 위해 상경한 것을 시작으로 58세 때까지 총 22차례 한양을 다녀왔고 그 전 과정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는데 『역주 이재난고』는 그 생생한 기록을 모두 담고 있다. 『역주 이재난고』는 중앙정치무대로의 진출 노력과 좌절을 기록한 호남선비의 일대기이며, 18세기 향촌 지역의 세태와 도시적 면모를 갖추어가던 한양의 분위기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고전자료라 할 수 있다.



『한의학 한자 1000』

부산대학교출판부 발행, 2015.

『한의학 한자 1000』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와 한의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한 2012년 부산대학교 특성화사업 ‘전통의학지식을 겸비한 융복합적 인력양성(전통의학지식사업단)’의 성과 중 하나이다. 『한의학 한자 1000』에는 한의학 교육용 필수한자 1000자의 뜻·음·획순·부수·총획수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으며, 따라 쓰기 등 한자 익히기에도 알맞게 구성됐다. 본 실습 교재는 전문성과 실용성에 있어 가장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될 것이다.

